

한글손편지

캐스코에게

안녕! 나는 다은이야 도서관에 갔는데 책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고르게 되었어. 이 책을 읽어보니 읽어도 읽어도 재미있더라 읽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썼어.

캐스코 너희들은 자신감 있어서 멋있어 자기주장을 당당하게 말하며 처리해 나가는 모습과 사건을 해결하러 먼저 나서는 모습이 특히 그래 바퀴벌레 잡을 때 망설이지 않는 모습이 용기 있어서 멋있어 보였어. 나도 너희들 처럼 용기 있고 싶어 왜냐하면 나는 애벌레 잡는게 무섭거든 너희 캐스코는 우리가족과 많이 닮았어.

‘무엇이’ 너는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과 상상을 많이 하는 것이 닮았어. ‘잡아’ 너는 굉장한 성격과 잔소리 하는 것이 우리엄마와 닮았어. ‘이튼이’ 너는 많이 우는게 우리 동생과 닮았어. ‘트링이’ 너는 크고 둥직한 것이 우리아빠와 닮았어 그래서인지 책을 읽을때 캐스코 너희 둘이 우리가족처럼 느껴졌어. 우리가족이 주의 **제8회** **책속산동에게 보내는** **한글손편지** 어 사건을 해결 하는 기분이 들었어. 캐스코 너희들을 정말로 만나보고 싶어

우리 만날때 까지

너희들을 응원 할게

안녕~!

2022년 9월11일



캐스코를 사랑하는

고다은